

공동체 소식

부활 제 3주일

자애로우신 아버지, 믿음의 빛을 비주시어, 저희가 성사의 표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 뵈고,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4월 기도지향

- 감영진(라파엘), 한춘희(라파엘라) 가정
-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안젤라) 가정

사제관 및 공동체 공간 매입

- 주소 : 8901/8903 Haskins st. Lenexa, KS 66215
 - 입주 : 4/13(토) 예정
 사제관 및 공동체 공간 매입에 수고해 주신 평협 임원과 아낌없이 기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복식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건진성사 예정

“건진성사로 신자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해야 할 더 무거운 의무를 진다.” <교회헌장, 11항> 세례성사의 완성인 건진성사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아직 건진을 받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은 전례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썰 기도 모임

저희 공동체 신심 단계로 ‘썰 기도’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썰(Cell) 기도는 1917년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기도하라, 희생하라, 티없는 내성심에 봉헌하라”는 요청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세포들의 소그룹 기도 모임입니다(썰기도서 33쪽 인용).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전례부에 신청 바랍니다.

로렌스 미사

- 일시 : 4/27(토) 오후 5시 30
 - 장소 : KU 로렌스 성당

분당 야외 미사

- 일시 : 5/5(일) 11시
 - 장소 : Shawnee Mission Park, Shelter #10
 분당 공동체가 모처럼 야외에 모여 주일미사를 봉헌하고 친교의 장을 마련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 이번 주일(4/14) 중심미사 후, 평협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 다음 주일(4/21) 중심미사 후, 구역장 회의가 있습니다.
 - 지난 4/13(토), 사제관 이사가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평협 임원과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35	340	180/197	132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문호진(안토니오)	정병훈(보니파시오)
	문예나(요 안 나)	고평원(프란치스코)
차주	이우영(가브리엘)	문석찬(요 셉)
	이원준(요 한)	문호진(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안 젤 라)	조장군(바 오 로) 우숙정(아나스타시아)
차주	김수연(율리안나)	양경직(돈보스코) 양정희(모 니 카)

애찬 봉사자

금주	박혜정(카타리나), 박희영(카타리나) 박계숙(헬레나), 임지현(에스텔)
차주	신혜경(마리아), 정선식(베로니카) 서정애(안젤라), 김재은(수산나)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 드 로)
차주	문석찬(요 셉)	최은미(아 네 스)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3/31	160명	429불	1395불
4/7	102명	436불	294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8: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어 당신의 양 떼를 맡기셨습니다. 당신을 모른다면 배반한 적이 있고 아직 믿음도 부족한 그를 끝까지 신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더욱 활짝 엽시다.

성화해설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나타나심
 (두치오, 1308-1311, Tempera on wood)

부활하신 예수님은 티베리아스 호수에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와 같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날 그곳에서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이십니다.”(요한 21,7) 그가 첫 부르심을 받을 때는 떠나주십시오고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두려움 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치오는 이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영현 시인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사도 5,27-32.40-41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으니 제가 당신을 높이 기리려 하나 이 다 -

-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으니 원수들이 저를 웃지 못하게 하셨으니 제가 당신을 높이 기리려 하나이다. 주님 제 영혼을 명부에서 건져주시고 구령으로 들지 않게 되살려 주셨나이다. ◎
-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그 성도들아 거룩하신 그 이름에 감사드려라. 그 노여우심은 잠시 뿐이나 그 어지심은 한평생가나니 울음이 저녁에 깃들어도 새벽이면 즐거움이 있도다. ◎
- 주님 들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몸을 돕는 분이 주님 되시옵소서. 이 내 슬픈 울음을 춤으로 바꾸소서 주 저의 하느님이여 영원히 당신을 찬미하오리다. ◎

제 2 독서 : 묵시 5,11-14 <살해된 어린양은 권능과 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복 음 : 요한 21,1-19<또는 21,1-14> <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 >

세 마

파티마 성모님의 세 번째 발현



1917년 7월 13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는데, 코바 다 이리아의 떡갈나무 가까이에서 또 다시 빛이 번쩍였고 조금 후 그 떡갈나무 위에 성모님이 나타나셨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하고 내가 물었다. “다음달 13일에도 여기 와 주고 전쟁이 끝나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묵주기도의 모후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누구인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저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 주십시오.”

“매달 계속해서 여기에 오너라. 10월에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 주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기적을 행하겠다.”

이때 나는 몇 가지 부탁을 드렸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묵주기도를 바쳐야 한다는 말씀이다. 성모님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도 하셨다. “죄인들을 위해 너희 자신을 희생으로 바쳐라. 그리고 자주, 특히 어떤 희생을 바칠 때마다 이 기도를 바치도록 해라. ‘오, 예수님, 이 선물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티없으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 드린 보속이며, 죄인의 회개를 위함이나이다.’”

성모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서 발현하셨을 때와 같이 당신 손을 펼치셨는데, 그 손에서 나온 빛은 땅을 꿰뚫는 것 같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불의 바다를 보았다. 그 불 가운데에는, 사람의 형상을 갖춘 시커먼 숯덩이 같은 영혼들과 악마들이 화염과 연기 속에서 떠돌고 있었다. 그들은 큰 화재 때 맹렬히 타오르는 화염과 사방에서 불뚝이 튀는 구름 같은 연기에 싸여 실망과 통곡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실로 그 광경은 우리를 공포로 전율케 만들었다.

우리는 너무 겁에 질려 그들의 구원을 애원하는 눈초리로 성모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성모님께서서는 친절하면서도 슬픈 어조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 티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서 이룩하고자 하신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요,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전쟁도 곧 끝날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계속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 드린다면, 비오 11세 교황 때에 또 다른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원인 모를 빛에 의해 밤이 밝혀지거든, 하느님께서 전쟁과 기아 그리고 교회와 교황에 대한 박해로써 세상의 모든 죄악을 벌하시려는 표지로 알아라. 이 재앙을 막기 위해, 러시아를 내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토요일마다 보속의 영성체를 실천하라고 부탁하러 다시 오겠다. 내 요청이 채워지면 러시아는 회개하고 평화가 올 것이다(중략)... 이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프란치스코에게는 해도 좋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바칠 때 매 신비가 끝난 다음에 이 기도를 바쳐라.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히 당신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아 주소서.’” 그리고 나서 지난 번의 발현에서와 같이 성모님은 동쪽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모습을 감추셨다.

- 발현의 목격자 루치아 수녀(가르멜 수도회 소속)의 증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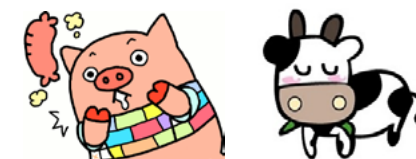


마중물

돼지와 암소

돼지가 하루는 암소에게 평소 자신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암소야, 너도 보다시피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사람들은 내 고기로 햄과 베이컨을 만들어 먹잖아? 또 내 창자를 빼내 순대를 만들어 먹고 심지어는 발도 족발로 만들어 얼마나 맛있게 먹니?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고 너만 좋아할까?”

우리가 가진 물질은 어차피 죽으면 남에게 다 주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동안에 남에게 많이 베풀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고 하느님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베풀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서도 비난을 받고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암소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죽어서만 좋은 일을 하고, 살아있을 때는 너만 먹잖아? 그러나 나는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또 맛있는 우유도 주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너는 싫어한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2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8.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부음받은 이’를 뜻하는 히브리 말 ‘메시아’의 그리스 말 번역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신적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이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 봉헌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사제들의 경우가 그랬고, 간혹 예언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결정적으로 세우시기 위해 파견하시는 메시아의 경우는 그중 가장 특출한 예입니다. 메시아는 왕이며 사제로서, 또한 예언자로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기름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제, 예언자, 왕의 삼중 임무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희망을 채워 주셨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436항).

29. 예수님을 하느님의 외아들이라 부르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천사,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자녀와 그들의 왕들을 부르던 칭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칭호는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에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자녀로 입양됨을 의미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441항).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다.”(마태 16,17) 하고 엄숙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442항).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외아드님이시며 또한 하느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필수적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454항).